

岐路에 선 OPEC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1962-63년에 걸쳐 石油輸出國機構(OPEC)의 베네수엘라代表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Petroleos de Venezuela Corp.의 부사장인 Humberto Penaloza氏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OPEC의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가격결정력에 대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回生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번역·전재한다. <編輯者註>

지난 80년 이후 세계석유시장에서 점차 감퇴되고 있는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영향력은 조직의 복원력에 의해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OPEC 체제의 붕괴로 귀결되어질 것인가. 이것은 석유를 연구하거나, 석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즈음의 상황으로 보아 자연스럽게 가질만한 의문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위에 OPEC를 와해시키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따라서 조직의 장래운명은 회원국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선진공업국들과 그들의 다국적석유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油價 통제력을 거머쥐려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비하여 OPEC는 앞으로 닥칠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서로를 우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OPEC는 지금까지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들어 왔다. 간단없는 油價인상, 주로 가난한 나라들의 희생 위에 단시일내에 축적한 오일달러, 그리고 西邦공업국에 대한 OPEC(아랍석유수출국 기구)의 석유수출금지 등이 지난 15년 동안의 에너지 산업을 돌이켜 볼 때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행태이었다. 더구나 OPEC로부터 경제원조 등의 혜택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중의 많은 수가 OPEC타도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敵意는 보다 강해지고, 限을 품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들은 OPEC란 나무를 쓰러뜨리려 큰소리 치고 있다. 마치 뿔나무로라도 쓸듯이.

좌절할 필요는 없어

둘째는 이미 앞서 언급한 사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서 OPEC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떨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OPEC의 전략수립과 회원국의 성실한 준수가 요구된다.

세째는 앞의 두 언급에서 분명하게 도출된다. 즉 사태를 관망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현재와 같이 급변하고, 복잡하며, 매우 까다로운 세계석유시장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다. 거꾸로 말하면, OPEC가 석유시장을 유효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 1) 뜻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2) 유사시의 집단행동을 위해서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독자적인 행위를 주시한다.

이러한 것이 실현되려면 회원국 각각의 확고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OPEC가 처한 종합적 사항을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첫째로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自由世界는 약 15~16백만b/d의 OPEC 원유 없이도 과연 무난할 수 있을까? 대답은 단연코 NO 라고 할 수 있으며, 단기 또는 장기간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서 뒷받침된다. OPEC는 ① 자유세계 석유수요의 1/3을 공급하고 있으며, ② 10-12백만b/d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인 동시에 현재로서는 생산비가 가장 낮고 ③ 자유세계 석유확인매장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80여년간 생산할 수 있는 량이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카드임에는 틀림없으나,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두번째는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관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OPEC는 현가격유지와 시장점유율 유지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81년 이후 지금까지의 명백한 사실로 OPEC는 산유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공식가격을 낮추든가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아 왔다는 점이다. 만일 減産을 단행한다면 非OPEC 산유국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油價를 낮추면 많은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문연구가들은 끝사나운 OPEC의 횡포에 대한 시장원리의 승리라고 환호작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실제 원인은 OPEC의 행태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번째 관점에서 주의깊은 관측통들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고객확보를 위하여 회원국들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하에 세계에너지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OPEC의 노력이 과연 가능할까? 대답은 단연코 NO 이다.

회원국간의 경쟁은 OPEC 초창기에 명백히 지지되어온 共助와 단결의 근저를 위태롭게 하는 유해한 요소이다. 또한 OPEC 자체내에서 불신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더욱 심하면 現物市場과 先物市場의 기능을 위태롭게 한 적도 있다. 이

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OPEC내에는 현재의 결속세력을 압도할만한 분리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예리한 관측통들은 지적한다.

네째는 OPEC의 아킬레스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관점이다. 현재와 같이 세계 석유시장에서 석유의 수요와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대부분의 OPEC회원국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생산할당량을 준수하면서 과연 필요로 하는 오일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애에 싸여 있다. 따라서 이들 회원국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돌파구로써 번칙적인 시장거래를 모색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OPEC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조직의 장래전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네개의 관점을 요약해보면; ① 자유세계의 석유공급원으로서의 OPEC의 중요성 ② 현재의 상황에서 油價고수와 마키트세어 유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OPEC의 어려운 입장 ③ 시장쟁탈을 둘러싼 회원국간의 경쟁으로 인한 결속력 약화 ④ 불확실한 석유수출전망으로 인한 外貨의 부족 등으로서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안의 難題가 되고 있다.

回生을 위한 제안

만일 OPEC가 향후 오랜기간에 걸쳐 세계에너지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회원국들은 운영상의 유연성과 점진적인 변화의 태두리 안에서 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바로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 OPEC가 회원국들에게 엄격한 카르텔의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설득해야 할 때인듯하다. 그리하면 OPEC는 자유세계에 Package로 15-16백만b/d의 원유를 2년동안 배럴당 26-28달러에 구매할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시는 可 아니면 否의 대답을 요구하며, 아울러 구매자측의 합의불이행시에는 자동적으로 OPEC는 향후 석유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주시시킨다.

이러한 제안은 지난 40년간 공업국들이 겪은 심각한 경제침체에 기인한 석유수요의 위축을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4년간 30%의 油價하락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은 산유국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

OPEC에 의한 Package제안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非OPEC산유국의 공급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요 석유수입국이나 대단위 정제시설을 보유한 非산유국들은 OPEC로부터 석유공급을 중단당할지 모르는 모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油價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더 많은 石油를 팔려는 유혹에 빠질 산유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산유국이 외화획득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시장과 고객을 둘러싼 OPEC 회원국간의 경쟁이 사라질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석유수요가 원래 제시 물량인 15~16백만b/d에서 점차 증가하여 석유가격이 완만히 상승하는 안정기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수년간 OPEC를 위태롭게 해왔던 계단식 油價하락(cascade effect)은 역전될 것이다.

OPEC가 package제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안 또는 밖 편리한 곳에 석유판매를 위한 조절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에는 OPEC 각 회원국의 석유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난 85년 7월 비엔나에서 열린 OPEC 石油相회담에서 거론된 석유판매를 위한 하나의 창구설치가 고려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험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은 76년 국유화 이래 Petroles de Venezuela의 3개의 子會社에 의한 해외 판매에 있어서 면밀한 조정을 지속하여 왔다. 최적의 공급, 공식가격, 계약의 단일화, 고객의 분배, 그리고 시장할당 등은 모두 조정의 차원을 거치며, 기본목표는 ① 이윤의 극대화 ② 합의사항의 준수 ③ 각 회사의 고객과의 상업적 유대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OPEC내에서도 국영석유 회사들의 특정부문을 이용하여 매우 생산적인 조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판매창구를 단일화

하건간에 그리고 OPEC사무국 내에 두든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든가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OPEC의 지향, 구조, 기능 그리고 사무국 자체의 업무 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무국은 연구능력을 배가하여 石油相회의에 立案·제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체제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石油相회의에서 중장기 OPEC의 전략을 채택하면 사무국은 이를 보완·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다른 수단으로서 지난해 4월 OPEC의 前베네수엘라대표가 제안한 外貨收入安定基金(currency income stabilizing fund)의 설립안을 들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할당량만큼 수출하지 못한 회원국들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다. OPEC의 생산량이 package제안의 한도내에서 실제 시장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경우, 기금은 비상시를 대비한 보증적립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일달러를 벌기 위해 기간계약 판매 이외의 다른 수단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봉쇄한다는 의미에서 보증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기금의 財源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OPEC는 사소한 의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보다도 더 충분한 재원이 요구된다. 현재 IMF나 세계은행이 에너지개발프로그램에 자금공여를 하는등 OPEC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항하여, 조성된 기금은 OPEC를 위해서 지출될 것이다. 기금의 세부운영 뿐만 아니라 통합, 조정, 금리, 상환 등의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안한 행동과 조치들은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어서 별개의 조치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작금의 상황에 접근하여 얻어진 이로부터서 시행될 경우, 강화된 OPEC의 세 章을 열 것이며,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조정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할 것이다.

회원국들의 정치적결단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은 반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반전이야말로 OPEC의 장래를 위한 妙方이다. ◆

(OPEC Bulletin 12· 1 월호)